

『임연당별집(臨淵堂別集)』 제가 평으로 살펴본 산운시(山雲詩)의 특징과 의미*

박동욱**

차례

1. 서론
 2. 『임연당별집』에 나타난 전체 시평
 3. 『임연당별집』에 나타난 개별 시평
 4.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산운(山雲) 이양연(李亮淵, 1771~1856)은 조선 후기에 활약했던 뛰어난 시인이다. 그의 『임연당별집(臨淵堂別集)』은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였다. 『한객건연집(韓客巾衍集)』 뒤에 합철(合綴)되어 있어서 그간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총 181제 207수가 수록되어 있다.

『임연당별집』은 산운 이양연 한 사람의 시와 그 시에 대한 네 사람의 총평(總評)과 세 평(細評)을 함께 실고 있다. 전체 작품평은 크게 5언 절구에 대한 긍정적 평가, 5언 고시(古詩)의 한위고악부(漢魏古樂府) 유사성, 근체시의 성당풍(盛唐風) 성향, 정서적 감염력 등을 주로 이야기했다. 형식면에서는 5언 절구와 5언 고시를 높이 평가하였고, 반면 7언 절구와 7언 율시는 아주 낮게 평가하였다. 근체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산운의 선택과 집중을 함께 보여준다. 내용면에서는 진솔하고 꾸밈없는 정서적 여운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감정의 과잉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되었다.

개별 작품평은 유흥경(柳興慶)이 11則, 이농인(李農人)이 1則, 성재승(成載榮)이 8則, 유희(柳僖)가 9則을 각각 남겼다. 형식적으로는 5언 고시 17편, 5언 절구 7편, 5언 율시 3편, 7언 절구와 7언 율시 그리고 6언시 각 1편씩 언급 되고 있다. 이러한 세평의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9년도).

**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부교수

결과는 총평과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요풍 한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예상을 벗어난 결과다. 이 시들이 조선풍 한시의 새로운 실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통 한시의 이완과 붕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운 한시에 대한 평들을 종합해 보면, 5언 고시와 악부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평가를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산운시 연구에서 5언 고시와 악부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주제어: 이양연, 『임연당별집(臨淵堂別集)』, 악부시, 민요풍 한시, 고시(古詩)

1. 서론

산운(山雲) 이양연(李亮淵, 1771~1856)은 조선 후기에 활약했던 뛰어난 시인이다. 그의 시는 200여 편에 불과하지만 어떤 시인보다 우수한 시적 성취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5언 절구 시에 특장을 보였다. 담백한 시어로 전고(典故)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뛰어난 발상과 감각으로 새로운 시세계를 구축했다. 그는 전통적 한시의 자장(磁場)에서 벗어나 조선적인 한시를 구현했다는 데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¹⁾

현재 산운의 문집은 여러 형태의 이본(異本)이 전한다.²⁾ 그중에 『임연당별집(臨淵堂別集)』은 세간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자료였다. 『한객건연집(韓客巾衍集)』 뒤에 합철(合綴)되어 있어서 그간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³⁾ 여기에는 총 181제 207수가 수록되어 있다. 산운의 시가 총 183제

1) 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용옥, 「山雲 李亮淵의 詩世界」(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山雲 李亮淵과 그의 詩世界」,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안동한문학회, 1991); 「山雲 李亮淵論」, 『조선후기한시작가론2』(이회문화사, 1998); 전송열, 「山雲 李亮淵 詩 研究」(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박동욱, 「山雲 李亮淵의 詩世界 研究」(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2) 다음 논문에 상세히 잘 정리되어 있다. 이용옥, 「山雲 李亮淵의 詩世界」(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211수인 것을 감안해 보면 『임연당별집』에 산운의 시 전체가 실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시도 32제 42수나 되니, 자료적 가치가 상당하다.

보통 개인의 시문을 모은 것을 별집(別集)이라 하고, 여러 사람의 작품을 모은 것을 총집(總集)이라고 한다. 그러나 『임연당별집』에서는 총집에 상대적 의미로서의 별집이 아니라, 본집(本集)에 상대적 의미로서의 별집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운의 시를 따로 모으고 시평을 붙였다. 특이할 사항은 후기(後記)에 산운 시에 대한 네 사람의 전체 작품평이 있으며, 작품에 각기 부기 된 26則의 개별 작품평과 비점(批點)이 보인다는 점이다. 비점은 각각 다른 색으로 찍어 놓았다.

기왕에 『임연당별집』의 존재와 의의에 대해서는 줄고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⁴⁾ 하지만 이양연 한시를 종합적으로 다룬 학위논문에서 『임연당별집』의 일부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임연당별집(臨淵堂別集)』에 나오는 전체 작품평과 개별 작품평의 분석을 통해서 이양연 한시의 특질뿐 아니라, 19세기 한시 비평의 양상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2. 산운시에 대한 전체평

홍색(紅色)은 참봉(參奉)인 파와(葩窩)⁵⁾ 유흥경(柳興慶)이 평한 것이고, 황색(黃色)은 이농인(李農人)이 평한 것이며, 청색(靑色)은 감역(監役)인

3) 규장각 소장본으로 서명은 『韓客巾衍集』, 저자는 유금(柳琴) 編으로 되어 있다. 사본(寫本)으로 4卷1冊이다. 표지의 서명은 사가시(四家詩)로 되어 있다. 서문(序文)에는 “乾隆四十二年丁酉(1777)…潘廷筠”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객건연집』이 끝나고 『임연당별집(臨淵堂別集)』이 합철(合綴)되어 있다.

4) 박동욱, 「山雲 李亮淵의 詩世界 研究」(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5) 파제(葩濟)라고도 나온다.

감부(愍夫) 성재승(成載崇)이 평한 것이고, 검은색은 진사(進士)인 방편자(方便子) 유희(柳僖)가 평한 것이다. 황색만 있고, 홍색·청색·검은색이 없는 것은 세 사람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5언 절구(絶句)를 유희경(柳興慶, 파와(葩窩)이 평하기를 “사객(詞客)의 작품이 아니라, 달사(達士)의 말이니 수식이 없어도 문체가 드러나고 조탁이 없어도 공교롭다. 진실 되고 오묘하며, 담백하고 싫증 나지 않아서 천성(天性)의 간명함에서 나온 것이다.”라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의고(擬古)를 주제로 한 여러 편은 장적(張籍)·왕건(王建)이 한위(漢魏)에 가까운 것보다 뛰어나다.”라 하였다. 이농인(李農人)이 평하기를 “5언 절구(絶句)는 당(唐)에 있었으나 오(吳)·초(楚)가 왕을 참칭(稱稱)함을 하려 하지 않았다. 5언 고시(古詩)는 때때로 한위(漢魏)의 사이를 배회한다. 단 근체시(近體詩)는 맹교(孟郊)의 우맹(優孟)을 면하지 못한 것은 어찌서인가?”라 하였다.

만시(輓詩)를 읊으면 귀신도 울고, 소나무를 읊으면 소나무의 그루터기가 말랐다. 내가 감히 믿고 전할 수는 없었으나, 유희경(柳興慶, 파와(葩窩))과 홍명거(洪明居)가 일찍이 말하기를, “시(詩)가 절로 자연스런 까닭에 참결(讖訣)을 이룬 것이 많다.”고 하였고, 이동찬(李東瓚, 해악(海岳) 또한 말하기를 “그것은 조화를 빼앗는 데에 가까우니 경계하여 다작(多作)을 삼가야 한다.”라 하였는데 이치가 혹 그러한 것인가? 이연성(李蓮城)은 “오백 년 동안 이러한 작품이 없었다.”라 하였고, 처사(處士) 안정(安攄)은 “그 시를 들으면 반드시 관(冠)을 가지런히 하고 바로 앉았다.”라 하였다. 순박한 시골의 이야기는 속일 수 없으니 내가 어찌 감히 그 좋아하는 것에 아부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성지(成之)가 국일(菊日)에 쓰노라⁶⁾

『임연당별집(臨淵堂別集)』에 비점과 시평을 남긴 이는 유희경(柳興慶),

6) 『임연당별집』: 紅, 葩窩柳參奉興慶批評也, 黃, 李農人批評也, 青, 成監役愍夫載崇評也, 墨, 柳進士方便子僖評也. 有黃而無紅青墨者, 三人之所未及見者. 五絶葩窩評曰, “非詞人之作, 乃達士之語, 不藻績而彩, 不刻鏤而工. 眞而輿, 澹而不厭, 出於天性之明簡者” 又曰, “擬古諸篇, 過張文昌·王建之逼漢魏” 李農人評曰, “五絶在唐, 不欲爲吳楚僭王, 五古往往徘徊漢魏間, 但近體, 未免爲東野之優孟, 何也?” 其咏挽而鬼神泣, 咏松而松株枯, 吾不敢傳信, 而柳葩窩洪明居, 嘗謂詩自天成, 故多成讖訣, 李海岳東瓚, 亦言其殆乎奪造化, 戒勿多作, 理或然耶. 李蓮城稱五百年來, 無此作, 安處士攄聞其詩, 則必整冠而跪, 邱里之言, 不可誣也, 吾何敢阿其所好而然也哉, 成之菊日書.

이농인(李農人), 성재숭(成載崇), 유희(柳僖) 등이다. 이중에 지명도가 있는 사람은 유희 한 명에 불과하다. 성재숭(成載崇, 1769~1846)은 본관은 창령(昌寧)으로 자는 사수(士修), 초명은 재학(載學)이다. 음직으로 선공감 감역(繕工監監役)을 지냈고 이조 참의에 추증되었다.⁷⁾ 유희경은 참봉을 했던 이력만 나올 뿐 자세한 행적을 확인할 수는 없다.⁸⁾ 이 네 사람 상호 간에는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는다.

후기에 등장하는 홍명거(洪明居), 이동찬(李東瓚, 해악海岳), 이연성(李蓮城)이나, 후기를 작성한 성지(成之)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 후기에 등장하는 안정(安穩)은 『은봉창의록(隱峯倡義錄)』을 썼다. 1864년 병자호란 때 의병장인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의 창 의 사실과 창 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 1779년 김종후가 쓴 서(序)가 있다.

위의 글은 『임연당별집』 후기로 전문(全文)이다. 주로 유희경과 이농인의 산운시에 대한 총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산운의 시 중에서 5언 절구, 5언 고시, 근체시 등에 대한 평가를 했다. 대체로 두 사람의 평이 공통되는 형식은 5언 절구와 고시(古詩)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본 절에서는 제가들의 총평을 중심으로 산운시의 특질을 살펴보겠다.

2.1. 5언 절구에 대한 긍정적 평가

산운의 시에서 5언 절구는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뛰어나다. 5언 절구에 대해서는 유희경과 이농인 모두 언급하였다. 먼저 유희경은 수식(藻績)

7) 한국학진흥사업 성과 포털에는 다음과 같이 나온다.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학자. 우계 성혼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광목, 어머니는 박희원의 딸이다. 18세기 중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성재숭은 파주 지역의 창녕 성씨 종중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집에 종중을 대신하여 보낸 편지들이 상당수 존재하며 족보 수정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철종 시기 간행된 창녕성씨족보(〈규 1879〉) 편찬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8) 유희경(柳興慶, 1771~?): 본관은 문화(文化)이고 자는 순서(舜瑞)이다. 『사마방목(司馬榜目)』

하지 않고 다듬지(刻鏤) 않아서 진실 되고 담박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산운은 <題西湖趙先生延憲詩集後>에서 “담박하고 우아함을 공경하여 초록하여서는 그것을 외웠고, 아이들에게 정서하도록 하였다.”⁹⁾라고 한테서도 알 수 있듯 그 자신도 담박(淡泊)한 시를 선호했다. 유흥경의 평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산운의 시는 진실 되고 담박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시인의 작품이 아니라, 달사(達士)의 작품처럼 보인다고 했다. 진실됨[眞]과 담박함[淡]은 산운 시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다. 유흥경은 <高吟望雲>의 세평에서도 “도연명에 가깝다.”고 평가하였는데 이와 연결되는 지점이다. 산운의 실제 작품을 보면 이러한 평가가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유흥경이 내용적인 측면을 말했다면, 이농인은 시풍(詩風)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5언 절구는 당(唐)에 있으나, 오(吳)와 초(楚)가 왕을 참칭함을 하려 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당시(唐詩)의 겉모습만 흉내 낸 것이 아니라, 당시풍의 진수를 체득했다는 것으로 산운의 시를 높이 평가한 말이다. 뒤에 나오는 세평에서도 산운의 시를 당나라 시인에 빗대어 설명할 때 시인 6명이 등장한다. 그중 왕유(王維)·이백(李白)·맹교(孟郊) 등은 성당(盛唐)에 속하고, 장적·왕건은 중당(中唐)에 속하며, 마지막으로 섭이중(聶夷中)은 만당(晚唐)에 속한다. 이처럼 그의 5언 절구는 당풍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산운 시의 정수는 5언 절구에 집중되어 있다. 5언 절구 형식은 성취와 한계가 극명하게 존재한다. 제한된 글자 때문에 고도의 형식미나 유려한 시상 전개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하지만 산운은 놀라운 시적 발상과 독창적인 시상 전개를 통해 탁월한 시적 성취를 이루었다. 이러한 시 한 편을 살펴보자.

9) 敬其淡雅，抄而誦之，使兒輩，淨書焉。

莫問前世因	전생의 원인을 묻지를 마오
今生無兩目	금생에 두 눈이 있지 않음을
不敢作一非	감히 하나의 나쁜 짓도 하지 못하니
爲修來世福	내세의 복을 닦기 위해서이네.

〈서쪽에 사는 맹인 병순에게 주다(贈西盲丙順)〉

이웃에 사는 맹인에게 준 시이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눈이 안 보이거나 탄식할 필요 없다. 현생에 눈이 안 보여서 나쁜 짓을 할 수 없는 것은 내세에 큰 복을 받기 위한 일이라 생각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현실의 슬픔과 분노도 다소 누그러지는 것만 같다. 불행과 불운을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2.2. 5언 고시(五言古詩)의 한위고악부(漢魏古樂府) 유사성

이농인은 “5언 고시(古詩)는 때때로 한위(漢魏)의 사이를 배회한다.”라고 평하고 있다. 5언 고시를 한위 고시에 방불하다 하여 높은 평가를 한 것이다. 여기서 한위고시(漢魏古詩)는 다름 아닌 한위악부시(漢魏樂府詩)를 가리킨다. 한위고시(漢魏古詩)는 정통적인 시인들이 추구해야 할 하나의 준칙과 전범으로 복고적이고 낭만적인 시 분위기를 보여주게 된다.

악부시(樂府詩)는 근체시보다 제약이 적어서, 파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악부시는 조탁과 형식미보다는 리듬감과 내용을 위주로 하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점들은 형식적인 완결을 중시하는 근체시와는 상당히 이반(離叛)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악부 시제로는 사실 작가의 개성이나, 한국적 풍경을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 산운은 한위고시로는 영사(詠史)를 주로 다루고, 민요풍 한시에서는 조선의 풍경과 풍경을 담았다. 산운은 이 두 가지 형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서로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었다. 지금껏 이 두 가지 형식 중 후자의 문제에 너무 치중해 왔기 때문에, 전자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세평(細評)에서 유흥경은 “의고를 주제로 한 여러 편들은 장적, 왕건이 한 위에 가까운 것보다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의고 악부시에 대해서는 장적·왕건보다 오히려 더 낫다고 평가한 셈이다. 장적과 왕건은 장왕(張王)으로 병칭된다. 중당(中唐) 시기의 시인 장적(張籍, 765?~830?)과 왕건(王建, 767?~831?)의 악부시를 두고 송나라 때의 허의(許顛)는 『주언시화(周彦詩話)』에서 “장적과 왕건의 악부 궁사는 모두 걸출하다.¹⁰⁾”고 했고, 명나라의 호응린(胡應麟, ?~?)은 『시수(詩藪)』에서 다시 “원진과 백거이의 장편 가행(歌行)과 장적과 왕건의 악부¹¹⁾”라고 병칭한 바 있다. 이렇듯 그들은 모두 신악부(新樂府) 운동의 선도자이자 중요한 성원이었다. 이들에게 산운을 비견한 것은 대체로 산운의 악부시가 보여주는 성취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 그의 5언 고시 한 편을 살펴보자.

願郎勿買船
買船勿賣田
昔余勤苦得
忍飢十年織

원한다 해서 곧 배를 사지 마세요.
배를 사려고 밭을 팔지 마세요.
예전에 내가 죽을 고생해 장만하느라
배고픔을 참으며 십 년 길쌈했잖아요.

〈동쪽 집 아낙(東家婦)〉

이 시는 여성 화자를 등장시켜 여인의 고단한 삶을 그려냈다. 배고픔도 참아가며 십 년이나 길쌈을 해서 간신히 밭을 장만했다. 여기에 남편이 기여한 바는 없지만 남편은 밭을 팔아 배(船)를 살 작정을 한다. 이제야 안정된 삶을 이루려는 희망은 남편의 현실성 없는 계획 앞에서 다시 위기를 만난다. 여자는 성실하고 현실적이지만 남자는 즉흥적이고 비현실적이다. 고작 스무 글자의 시를 통해 이 부부의 위기가 절실하게 드러나 있다.

10) 張籍·王建樂府宮辭皆傑出

11) 元白長篇 張王樂府

2.3. 근체시(近體詩)의 성당풍(盛唐風) 성향

여기서 말하는 근체시는 5언 절구를 제외한 5언 율시와 7언 절구, 7언 율시를 말한다. 산운의 시는 5언 절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른 근체시의 편수는 5언 절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근체시를 “맹교(孟郊)가 우맹의 흉내를 면치 못했다”라고 평한 것은 미흡한 작품 완성도에 대한 지적이다.

맹교(孟郊)는 성당(盛唐)의 대표적 작가로서 가도와 더불어 ‘교한도수(郊寒島瘦)’라는 말로 유명하다. 맹교 시의 특징은 수척하면서도 힘차고 기이하면서도 놀라운 일면이 있었다. 우맹(優孟)은 초(楚)나라의 유명한 배우로 손숙오(孫叔敖)의 의관을 차리고 손숙오의 아들을 궁중에서 구해낸 우맹의관(優孟衣冠)이라는 고사로 유명한 인물이다. 결국, 이농인의 평은 산운의 근체시가 성당풍(盛唐風)을 보이기는 했지만, 실제로 작품의 수준은 높지 않았음을 지적한 말이다. 악부시(樂府詩)와 근체시(近體詩)는 어느 정도 상반되는 특성이 있다. 악부시는 근체시의 형식적인 특성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다. 산운은 엄격한 형식의 근체시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형식의 고시나 악부시를 선호해, 근체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그렇다고 근체시가 모두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아니었다. 그의 근체시 한 편을 살펴보겠다.

玉鏡磨來掛碧空
明光正合照粧紅
宓妃織女爭相取
半在雲間半水中

옥거울 닦아서 하늘에 걸었더니,
밝은 빛 정말로다 몸단장에 그만이었는데,
복비(宓妃)와 직녀(織女)가 가지려고 다투다
구름 속에 반절 있고 물속에 반절 있네.

〈반달(半月)〉

이 시는 평측과 압운이 모두 근체시의 조건에 부합한다. 이 시는 시인의 감흥(感興)을 통해 대상 속에 감정을 이입시켜 대상을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반달의 유래를 상상해서 그려낸 작품으로 시인의 참신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구에서 옥경(玉鏡)은 달이다. 달이 하늘

에 떠 있는 사실을, 거울을 깨끗이 닦아 하늘에 걸어 놓았다고 표현했다. 2구에서 달이 거울처럼 밝고 맑아 여자들 몸단장에 안성맞춤이라 했다. 3,4구에 선 낙수(洛水)에 있는 복비(宓妃)와 하늘에 있는 직녀(織女)가 서로 다투다가 반쪽은 하늘에 있고 반쪽에 물에 있다고 했다. 물에 비친 반달을 시인의 참신한 감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평범한 사실에서 별다른 언어의 조탁이나 수사를 통한 기교를 부리지 않고서 참신한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경물(景物)에 대한 이러한 참신한 해석과 시도는 섬세하고 나약한 만당(晩唐)의 분위기와는 확실히 격을 달리한다.

2.4. 대단한 정서적 감염력

이연성의 “5백 년 이래로 이러한 작품이 없었다.”라는 평가나, 안정(安穩)의 “그 시를 들으면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기사는 당대 산운 시에 대한 추중이 높았음을 방증해주고, 아울러 그 시사(詩思)의 간절함과 진실함이 독자를 감동시켜 주었음을 말해준다.

또 만시를 읊조리면 귀신이 울고, 소나무를 노래하니 소나무의 그루터기가 말라버렸다는 이야기는 아마도 산운의 시에 얽힌 실제 고사인 듯 하나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예화는 산운의 시가 귀신도 울게 하고 사물도 감응할 정도로 정서적 감염력을 지녔음을 말한 듯 한데, ‘참결(讖訣)’ 운운한 대목에서는, 그 시가 훗날을 예언하여 적중한 일도 적지 않았음을 당대 시인들의 증언으로 전한 것이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말한 셈이다. 깊은 정서적 울림이 독자를 감동시키고 어떤 주술적 사건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산운 시의 장단점 모두를 보여준다. 어떤 시인보다 더 절실하게 시인의 폐부에서 나오는 육성(肉聲)인 탓에 그만큼 독자를 크게 감동시키는 측면이 있다. 반면 너무 지나친 감정의 과잉이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후기에서 이동찬이 다작을 삼가야 한다고 한 것은 이러한 산운 시가 가지는 부정적인 일면에 대한 지적으로도

읽힌다.

- | | |
|--------------------------------|---|
| [1] 何處去何處去
鶴髮親髻齡兒
都棄了何處去 |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머리 섰 부모와 나이 어린애를
모두 다 버리고 어디로 가나. |
| [2] 何時來何時來
黑漆漆長夜中
今日去何時來 | 언제나 오시려나 언제나 오시려나
칠흑같이 캄캄한 긴 밤중에
이제 가시면 언제나 오시나 |
| [3] 有誰知有誰知
萬壘山黃昏月
獨啾啾有誰知 | 누가 아시나 누가 아시나
참참 산중 황혼 달에
홀로 슬퍼도 누가 아시나
〈계봉에 대한 만시[挽溪朋]〉 |

산운의 만시는 애만류(哀挽類)에 배치되어 있다. 이 시에 대해서는 이농인(李農人)이 “마땅히 귀신도 울게 한다.[宜乎泣鬼神]”라 평하였고, 『몽유야담(夢遊野談)』에서는 이희준(李羲準)이 “만사는 정을 펼쳐내고 슬픔을 토로해내면 그만이다. 3첩으로 이루어진 이 만시(輓詩)는 매우 처절한데, 긴 사설을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과 비교하면 훨씬 뛰어나다.”¹²⁾라고 하였다. 이농인은 편집함에, 이희준은 절제를 각각 높게 평가했다. 이외에도 산운의 절명시(絶命詩)인 <병극(病革)>도 매우 유명하다.

이 시는 상여소리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계봉(溪朋)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친한 벗으로 보인다. 부모와 어린애를 두고 요절한 친구에 대한 조곡(弔哭)이다. 남은 가족을 제시하여 고인(故人)의 부재(不在)를 확인하고, 죽음의 불가역성을 제시하여 아픔을 고조시키며, 고인을 잃고 남겨진 자신의

12) 이희준(李羲準), 『몽유야담(夢遊野談)』 51장: “輓詞欲其披情泄哀而已, 有人爲其友輓曰: ‘何處去, 何處去. 鶴髮親, 髻齡兒. 都棄了, 何處去. 何時來, 何時來. 萬壘山, 黃昏月, 今日去, 何時來. 有誰知, 有誰知. 黑漆漆, 長夜中, 獨啾啾, 有誰知.’ 是爲三疊, 極其悽切. 其視漫辭張皇, 亦可謂遠矣.”

슬픔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임연당별집』 후기(後記)에 보이는 평들을 종합해 보면 시체면에서는 5언 절구와 5언 고시를 높이 평가하였고, 반면 7언 절구와 7언 율시는 아주 낮게 평가하였다. 근체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산운의 선택과 집중을 함께 보여준다. 근체시를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시작(詩作)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그동안 크게 다루지 않았던 산운의 악부시에 대해서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내용면에서는 진솔하고 꾸밈없는 정서적 여운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감정의 과잉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도 제시했다.

3. 산운시에 대한 개별평

개별 작품평은 유흥경(柳興慶)이 11則, 이농인(李農人)이 1則, 성재승(成載榮)이 8則, 유희(柳僖)가 9則을 각각 남겼다. 이것을 통해 이들이 산운의 어떤 시에 주목을 했고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유흥경(柳興慶)의 세평(細評)

순번	제목	세평	기타
1	東家婦	의고(擬古)시 여러 편들은 장적과 왕건(王建)보다 뛰어난 것이 있다[擬古諸篇過張文昌王建].	5언 절구 (感興類)
2	雲丈臺	내가 청화산(靑華山) 정상에 올라가서 운장대(雲丈臺)를 돌아 보고 지은 시 1연에 이르기를 “빗자국은 돌에 세 갈래 물로 떨어졌고, 바람기운 멀리 오현촌(五賢村)에서 나뉘네.”라 하였다.[余登靑華絕頂，回眺雲丈一聯云，“雨痕石滴三派水，風氣遙分五賢村”]	7언 율시 (遊覽類)
3	庭花	내가 일찍이 <舟上四郡>에서 이르기를 “소낙비가 숲 지나자 물은 더욱 맑은데, 닭들이 세 해를 우니 새벽노을 환하였네. 가슴 속의 아름다운 산을 구경하는 마음은, 도리어 높은 이들이 적막하게 영위하지 않음을 괴이하게 여기노라.”라고 하였다.[余嘗舟上四郡詩云，“鳴雨經林水更清，子鷄三鳴曙霞明。胸中一段佳山賞，還怪高人寂不營”]	5언 고시 (遊覽類)

4	鴨鷗亭與 李季賢	눈앞에서 평소에 보는 것이나 말한 사람은 드물다.[眼前常常之見, 稀有人道得]	5언 고시 (觴詠類)
5	呈晚悟	정전제(井田制)는 후세에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이다. 단지 백성의 토지 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 노천(老泉, 蘇洵)의 <논형(衡論)>은 옳으니, 때를 알고 형세를 알게 되는 것은 『주역(周易)』을 배운 큰 방책이다.[井田, 後世, 決不可行. 只宜限民占田. 如老泉衡論可矣, 知時識勢, 學易之大方.]	5언 고시 (寄贈類)
6	避稅怨	섭이중(聶夷中)이 마땅히 오면 칭찬을 독차지 하리라.[聶夷中, 宜來專美]	5언 고시 (感興類) * 유희도 이 시에 대해 평가함.
7	悵然	강개(慷慨) · 침울(沈鬱)하다.[慷慨沈鬱]	5언 율시 (感興類) * 이농인도 이 시에 대해 평가함.
8	高吟望雲	· 도연명에 가깝다.[逼陶] · 나의 뜻은 산에 돌아가는 것이니 푸성귀 먹고 거친 옷 입어도 만족할 만하다. 그런데 경작할 만한 땅 얻을 수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는가?[我意還山, 茹蔬衣葛足矣. 耕地不可得, 如之何則可也?]	5언 고시 (感興類)
9	二陵	교활한 오랑캐들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으니 임진년의 원수는 백번 생각해도 어찌 한번이나 의심할 나위가 있겠는가. 어찌 일찍이 저들을 원수로 삼는 것이 이와 같았던가. 대체로 사대부들은 비록 중이나 붓과 같은 등속이라도 왜인의 물건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집에다 두지 않는 것이 좋다.[狡虜, 至今日, 壬辰之讐, 百爾, 豈不一疑乎哉. 何嘗讐渠, 若是. 大抵士大夫, 雖紙筆之屬, 以倭物名者, 不畜於家可也.]	5언 고시 (『임연당별집』)
10	六臣墓	월릉(越陵)에 절식(餓食)한 분이 2백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다만 환하게 빛나는 분은 육신(六臣) 뿐이다.[越陵餓食殆趁二百, 但炳煒赫赫六臣]	5언 고시 (遊覽類)
11	翡翠	복희씨 신농씨 이래로 이 같은 것이 벌써 오래데, 이를 탄식하는 것이 도리어 미혹되다.[自羲農以下厥惟久矣, 歎之者反惑矣.]	5언 고시 (感興類)

유홍경은 5언 고시 중에 장편시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운집』에서 산운의 한시는 열 개로 분류하여 수록되어 있다.¹³⁾ 유홍경은 주로 감흥류(感興類)와 유람류(遊覽類)에 해당하는 작품을 뽑았다. 영사시, 악부시, 사회시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많았다. <雲丈臺>와 <庭花>는 ‘이시논시(以詩論

13) 遊覽類, 觴詠類, 送別類, 寄贈類, 遣興類, 感興類, 遣悶類, 哀挽類, 感懷類, 詠物類.

詩)’의 방법을 사용해서 평을 하였다. 유흥경은 네 사람 중에 가장 많은 11편에 대해 세평(細評)을 남겼는데, 세평의 길이도 가장 길다. 유흥경이 세평을 남긴 시 한 편을 살펴보자.

翡翠宜我桁
而鳥莫我屋
貴賤一僕虫
錦葛爲榮辱
榮者未必直
辱者未必曲
大抵朱門人
行狀皆濂淥
後世太史公
編之名臣錄

비취새는 우리집 들보에 살아도 되나,
까마귀는 우리 집에 오지를 마라.
귀한 이도 천한 이도 다 사람인데
비단옷 칩베옷으로 영욕을 재네.
영화로운 자라 해서 꼭 바르지 않고
욕된 자도 반드시 나쁘진 않네.
붉은 칠한 소슬 대문 사는 사람도
행장마다 모두가 큰 학자라네.
뒷 세상에 역사를 엮는 사람은
명신록에 그 이름 올리어 놓지.

〈비취새(翡翠)〉

이 시에 대한 유흥경의 세평에 담긴 의미는 세상은 옛날부터 늘 그래왔으니 탄식할 것이 없다고 핀잔을 주는 것 같지만, 실은 산운의 의도에 공감한 것이다. 인간은 귀천(貴賤)을 떠나서 모두가 존귀한 존재라 말들 한다. 하지만 실상은 크게 달라서 귀천에 따라 영욕(榮辱)을 판단한다. 마땅히 곡직(曲直)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른 경우가 더 많다. 잘 사는 집 성공한 사람은 다들 행장마다 큰 학자라 평가를 받고 사가(史家)들도 명신록에 기록을 남긴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대접을 다 누리는 셈이다. 이 시에는 언외(言外)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 우리 집에 살려거든 물총새는 괜찮다지만 까마귀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물총새의 화려한 빛깔에 눈이 멀어 까마귀의 검은빛은 평가절하하게 되고 그것을 소유한 사람마저 낮추어 평가하기 때문이다. 이 시는 반어적으로 권력을 지니고 성공을 거둔 사람들만을 높이 평가하는 세태를 말하고 있다.

[2] 성재영(成載榮)의 세평

순번	제목	세평	기타
1	大風念兒行	· 부자(父子) 사이에 이미 천하의 지극한 기쁨이 있음을 알겠다. [父子間知已天下之至權] · 말한 것이 예전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한 것을 얻었다[說得前人所未到]	5연 고시(遣悶類)

不願兒節義
不願兒公卿
願兒千里外
不使我心慄
未聞謙者辱
百事敬則亨
尋常慎飢飽
勞逸貴稱停
分日遙算道
微雨尚惱精
八月之初七
風候慘不晴
山嶽吼時倒
怒濤簸崢嶸
堯夫四不出
汝嘗以孝稱
雖信見及此
聖念疲深更
始知我行時
父母送我情

아이가 절의 있길 원하지 않고,
아이가 고관(高官) 됨도 원하지 않네.
원하는 건 아이가 천 리 밖에서
날 근심겹게 하지 않게 되기를.
겸손한 이 욕 당했던 말을 못 들었으니
모든 일을 공경하면 형통할거네.
평소에는 굶주림과 과식 삼가고,
노고와 안일은 알맞게 함이 소중하네.
하루하루 먼 길을 따져보노니
가랑비에라도 오히려 정신 괴롭네.
팔월의 초 칠 일인데
날씨가 어둑어둑 개이지 않네.
산들이 울부짖으며 때로 뒤집어지고,
성난 파도는 험하게 일어나누나.
소용처럼 네 가지 경우에 집 나서지 않았으니
넌 일찍이 효자라 일컬어졌지.
비록 진실로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니
근심으로 한 밤중에 마음 졸이게 되네.
비로소 내가 여행 떠날 때에는
부모님이 날 보내시던 정을 알겠네.

〈큰 바람에 아이를 생각하다(大風念兒行)〉

이 시는 건민류(遣悶類)에서 뽑힌 유일한 작품이다. 성재영(成載榮)은 이 시에만 두 개의 세평을 남긴 바 있다. 세평의 내용은 부자 간의 정에 대한 것과, 전대의 시에서 볼 수 없는 높은 시적 성취를 언급했다. 기존의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시이어서 한번 살펴 보겠다.

이 시는 큰 바람이 불자 여행을 떠난 아들을 걱정하며 지은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명예나 성공에 있지 않고, 오직 자식의 안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랑비에든 자식 걱정이 드는 법인데 큰 바람이 불어 대어 사나운 날씨가 되자 자식 걱정은 더해만 가서 부모는 잠을 이룰 수도 없었다.

소옹(邵雍)은 일찍이 큰 추위가 있을 때 나가지 않고, 큰 더위가 있을 때 나가지 않으며, 큰 바람이 불 때 나가지 않고, 큰 비가 올 때 나가지 않았으니¹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부모님의 걱정이 커지기 때문이다. 평소 산운의 아들도 이러한 경우에는 바깥출입을 삼갔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산운도 유람을 좋아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부모가 느꼈을 심정을, 자식의 일을 통해 느끼게 된다. 이 시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 진실되게 표현되어 있는데 평자도 이 점을 주목하여 평한 것이다. 산운은 죽은 부인과 둘째 아들을 추억하고 애도하는 시들을 여러 편 남겼는데, 살아 있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담은 유일한 시라 할 수 있다.

[3] 유희(柳僖)의 세평

순번	제목	세평	기타
1	赤裳山見山下雨	절품(絶品)이다.[絶品]	5언 절구 (遊覽類)
2	東家婦	뜻이 언외(言外)에 있으니 시를 짓는데 남긴 모양이 있다.[意在言外, 有撰詩遺態]	5언 절구 (感興類)
3	官吏僧	큰 상쾌함이 사람을 엄습한다.[太爽逼人]	5언 율시 (感興類)
4	松江夜	결구는 기이함을 얻었다.[結得奇]	5언 고시 (遊覽類)

14) 소옹(邵雍)의 저서(著書)인 『擊壤集』, 〈四事吟〉에 “會有四不赴, 時有四不出, 無貴亦無賤, 無固亦無必. 裏閑閑過從, 身安心自逸. 如此三十年, 幸逢太平日.”이라는 시가 있다. 여기서 첫 번째 구에서 사불부(四不赴)는 공회(公會), 생회(生會), 광회(廣會), 약회(醜會)이고, 두 번째 구에서 사불출(四不出)은 대한(大寒), 대서(大暑), 대풍(大風), 대우(大雨)등을 가리킨다.

5	周遊	웅건(雄健)함을 볼 수 있다.[滄壯可觀]	5언 고시 (遊覽類)
6	寄莘野	시문을 짓는 방법이 정돈되고 심오하다.[篇法整奧]	5언 고시 (寄贈類)
7	女丁怨	동방에 있지 않은 시이니 진실로 시인의 풍지(風旨)를 얻었다.[東方所未有之詩, 眞得詩人風旨]	5언 고시 (感興類)
8	永郎笑	마치 고악부를 읽는 것 같아 그것을 읽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상쾌하게 해준다.[如古樂府, 讀之, 令人快爽]	5언 고시 (感興類)
9	避稅怨	관인들로 하여금 시리에 밝아지게 할 수 있다[可令官人鑑悟]	5언 고시 (感興類)

유희는 5언 고시와 5언 절구를 주로 다루었다. 유람류와 감흥류에 해당하는 작품을 뽑았고, 악부시와 사회시에 주목하였다. 아주 간결한 시평을 남긴 것이 특징이다. 〈官吏憎〉에서는 ‘太爽逼人’이라 했듯이 구태의연한 표현보다는 의표를 찌르는 감각적인 표현을 발휘하여 평했다. 구성에 대한 평으로는 〈松江夜〉에서 “절구가 기이함을 얻었다.”라 한 것과 〈寄莘野〉에서 “편법(篇法)이 정오(整奧)하다.”라 한 점은 산운 시에서 보여주는 완결된 구성에 대한 지적이다. 유희가 절품(絶品)이라고 평가한 작품 한 편을 살펴보겠다.

山下雲雷深
人間今日雨
誰家喜田事
誰家憂遠路

산 아래 구름 우레 잠겨 있으니
세상에선 오늘은 비 내리겠네.
밭일 하는 집에선 기뻐할게고
먼 길 가는 길손은 근심하겠네.

(적상산에서 산 아래 내리는 비를 보다[赤裳山見山下雨])

적상산(赤裳山)은 전북 무주군 적상면에 소재한 산으로 높이 1,038m이다. “이 산은 암벽이 붉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온 산이 마치 여자가 붉은 치마를 입은 것 같다고 하여 적상산이라 하였다.”고 한다. 산운은 산 위에서 저 산 아래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 똑같은 비이지만 누구에게는 득이 되고 누구에게는 실이 된다. 그런 득실에 따라 희비가 교차 되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런 일도 아니다. 산운의 시는 유독 정상에서의 감회를 쓴 것들이 많다. 위에서 아래를 보면 아래에서 도드라져 보이는 시비(是非), 호오(好惡), 장단(長短),

미추(美醜), 선악(善惡), 우열(優劣)의 가치는 의미가 줄거나 의미를 잃게 된다. 그래서 그의 시에서는 세상 일을 통달한 달사의 모습이 많이 보인다.

[4] 이농인(李農人)의 세평

순번	제목	세평	기타
1	山亭	『鞞川集』 안에 섞어 놓아도 누가 능히 분별할 수 있겠는가[雜置鞞川集中, 誰能分淄澠]	5언 절구 (遣興類)
2	古新人	옛날의 절구(絶句)이다.[古絶句]	5언 절구 (感興類)
3	病革 ¹⁵⁾	이 시는 세상에 모두 전하여 옮겨 되었으나, 원래 시집에는 들어 있지 않으니 애석할 만하다.[此詩, 世皆傳誦, 而不入元集, 爲可惜]	5언 절구 (『임연당별집』)
4	邂逅	그 시를 읽으면 그 사람을 알진저.[讀其詩而知其人者乎]	5언 고시 (觴詠類)
5	悵然	시인 중에 형가.(荊軻)다.[詩人中荊卿]	5언 율시 (感興類) * 유흥경도 이 시에 평을 남겼다.
6	挽溪朋	마땅히 귀신도 울게 하다.[宜乎泣鬼神]	6언시 3구 (哀挽類)
7	與人約遊湖海	시선(詩仙)이다.[詩仙]	7언 절구 (遊覽類)
8	寶盖山中	세상에서 누가 종자기인가?[世間, 誰是子期]	5언 절구 (遊覽類)
9	剛齋來吟不和 未乃作此	강개하다.[慷慨]	5언 고시 (寄贈類)

이농인은 5언 절구와 5언 고시를 주로 대상으로 하였으나 비교적 다양한 시체(詩體)를 다뤘다. 또 감흥류와 유람시에서 뽑긴 하였으나 역시 다양한 시류(詩類)를 다뤘다. 특히 강개한 작품들에 주목하였는데 그 중 한 편을 살펴보겠다.

15) 『臨淵堂別集』에는 제목이 〈病革〉으로 되어 있고, 『옥류산장시화』에는 제목이 〈自輓詩〉로 되어 있다.

有口須飲酒
無酒焉用口
有口口何言
道言聽者疑
長歌歌如哭
我哭人笑之
爲詩不必好
不好又何爲
君且休云云
耳聾亦多時

입 있으면 모름지기 술 마셔야 하건만
술이 없으니 입을 어데 쓰겠나
입 있으면 입으로 무얼 말해야 하나.
말해도 듣는 이들 의심만 하네.
높은 노래 지어 곡하듯 노래 불러도,
나는 곡하지만 남들은 비웃기만 하네.
시 지어도 꼭 잘 짓지 못하는데
못 짓는다 해도 어쩔 수 없잖아.
그대 잠시 아무 말씀도 하지라 마오
귀가 먹은 지 오래 되었다고.

〈강제가 와서 읊으면서 화답하기를 요구 했으나, 화답하지 않다가 끝에 가서
이에 이 시를 짓다(剛齋來吟, 要和不和, 末乃作此)〉

산운 시에 있어서 강개(慷慨)는 매우 중요한 특질 중 하나다. 이 시는 강제(剛齋, 김정현(金鼎鉉)을 말한다)라는 사람이 자신의 시에 화답을 요구했지만 산운이 답시를 짓지 않자, 자신이 귀머거리가 된 것 같다고 불쾌한 심사를 드러내자 쓴 것이다. 유수대(流水對)를 사용하여 표현했다. 입의 쓰임새는 술 마시기, 말하기, 노래하기, 시 읊기 등 크게 4가지를 꼽을 수 있다. 산운은 이 중에서 능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술이 없어서 입을 사용하지 못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을 할 필요도 없으며, 노래를 하자니 비웃음이나 당할 판이고, 시를 읊자니 재주가 없어 잘 짓지 못한다. 그러니 입이 하는 모든 일에 무능하여서 입을 닫고 있었다는 변명을 한다. 이처럼 그는 세상과 소통의 단절을 강하게 호소하였다. 9, 10구는 자신이 이런 이유로 화답을 하지 않은 것이니 내 속도 모르고, 내 화답을 듣지 못해 귀먹은 지 오래 되었다는 말은 하지 말라 하였다.

세평(細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세평의 대상 작품들을 분류하면 감흥류(感興類) 12편, 유람류(遊覽類) 8편, 기증류(寄贈類) 3편, 상영류(觴詠類) 2편, 견민류(遣悶類) 견흥류(遣興類) 애만류(哀挽類) 각 1편 씩이다. 감흥류와 유람류에 해당하는 시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감흥류에

는 악부시, 사회시, 영사시 등이 실려 있다. 감흥류 작품이 총 28편인 것을 감안해 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에 세평이 남아 있는 셈이다. 유람류 작품들이 많은 것은 크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산운 자신이 평소에 유람을 즐겨 했던 인물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익히 언급되어 왔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것은 견흥류(遣興類), 견민류(遣悶類), 애만류(哀挽類), 송별류(送別類), 감회류(感懷類), 영물류(詠物類) 등이다. 앞에 제시된 3개의 시류(詩類)에 대해서만 한 번씩 언급이 되었고, 나머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견흥류에는 거의 대부분 '민요풍 한시'들로 채워져 있다. 총 13題로 연작시들이 많고, 전부 절구시이다. 산운시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크게 '사회시'와 '민요풍 한시'이다. 사회시에 대한 언급은 예상대로 세평에서 언급되었다. 통상 산운시의 특질로 알려진 '민요풍 한시'들이 세평을 남긴 4명의 논자들에게 외면을 당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일까? '민요풍 한시'에 대해 당대와 현재의 온도차가 뚜렷하게 존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민요풍 한시'가 당대에 일군의 작가들에게 창작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호되지는 않았다. 이 시들이 조선풍 한시의 새로운 실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통 한시의 이완과 붕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山亭白日閒
山鳥啼兩兩
柳絮飛將下
輕風吹復上

산 속 정자 대낮에 한가하여서,
산새들만 지지배배 우짖는구나.
버들개지 날아서 떨어지려다
미풍 불자 다시금 솟아오르네.

〈산 속 정자(山亭)〉

이 시는 유일하게 견흥류에서 뽑힌 것이다. 이농인은 앞서 “왕유의 『망천집(綱川集)』 안에 섞어 놓아도 누가 능히 분별할 수 있겠는가?〔農曰：“雜置綱川集中，誰能分淄澗”〕”라고 했다.¹⁶⁾ 왕유의 산수시는 소식이 “시 속에 그림

16) 〈寶蓋山中〉: 微風入松林, 吹葉不成響. 松間雲暗移, 轉向東峯上. 산운의 이 시도

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畫, 畫中有詩)”고 표현할 정도로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시도 회화성이 무척이나 뛰어나다.

봄날의 나른한 풍경을 섬세한 감각으로 포착하고 있다. 산정(山亭)에는 산새(山鳥)만 제가 주인인 듯 울고 있다. 이 시의 시안(詩眼)은 역시 ‘한(閑)’이다. 한가함이야말로 미세한 버들가지를 남다른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1, 2구에서 산정(山亭)을 원경(遠景)에서 묘사하다, 3, 4구에선 버들가지를 근경(近景)에서 묘사한다. 마치 버들가지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듯 선하다. 이런 삶의 여유와 관조에서 포착되는 정경은 산운의 다른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견민류와 애만류에 대해 살펴보겠다. 견민류는 총 3편 중에 1편을 언급했는데 앞서 다룬 바 있다. 애만류는 총 4편 중에 1편만 언급했다. 언급된 작품은 〈挽溪朋〉이다. 〈挽溪朋〉과 〈哀道州〉만이 『산운집(山雲集)』 전체에서 유일하게 6언시이다. 이 시에 대해서는 다른 작가도 언급한 바 있다.

끝으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송별류(送別類), 감회류(感懷類), 영물류(詠物類)에 대해 살펴보자. 송별류는 총 6편인데 모두 지인들과의 이별에서 느낀 감회를 적고 있으며 모두 5언 절구이다. 감회류는 총 7편인데 5언 절구이고 연작시가 많다. 감회류에 해당하는 시들은 한 편을 제외하고(사돈 여덕영과 관련이 있는 시)는 모두 산운의 죽은 아내와 둘째 아들 인익(寅翊)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지나치게 개인사와 관련된 시들이기 때문에 세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영물시는 모두 11편인데 참신한 감각의 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 〈落日〉, 〈詠月〉, 〈半月〉은 모두 해와 달을 감각적으로 읽어낸 시이다. 〈蘭〉, 〈秋花〉, 〈啄木〉, 〈黃鳥白鳥〉, 〈白鷺〉, 〈暮蟬〉은

왕유의 〈鹿柴〉에 나오는 운자를 그대로 쓰고 있다. 또, 〈樓上〉: 睡裏聞黃鳥, 依窓待復啼. 啼時還不省, 雲片過樓低. 산운의 이 시는 보이는 존재이지만 존재하지 않은 것 같은 미묘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왕유의 〈녹채(鹿柴)〉에 “빈 산에 사람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말소리만 들려오네(空山不見 但聞人語響)”라 하는 것과 느낌이 비슷하다.

난초, 가을꽃, 딱따구리, 피꼬리와 고니, 백로, 매미 등을 각각 다뤘다. 이 중 몇 편은 우언(寓言)의 방식으로 시를 썼다. 상당히 뛰어난 작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세평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식적으로는 5언 고시 17편, 5언 절구 7편, 5언 율시 3편, 7언 절구와 7언 율시 그리고 6언시 각 1편씩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세평의 결과는 총평과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산운시 연구에서 5언 고시와 악부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앞서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내용적으로는 첫째로 사회시에 대한 애호를 보였다. 산운은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다. 작가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으로부터 크게는 모순적인 사회 현실까지를 다루었다. 둘째로 강개(慷慨)한 시들을 많이 남겼다. 현실과의 불화(不和)를 이렇게 표출하였다. 〈悵然〉과 〈剛齋求吟要和不和未乃作此〉 등이 대표적이다. 〈悵然〉은 세평에서 “시인 중에 형가(荊軻)다. [詩人中荊卿]”라 해서 『사기(史記)』 비장한 인물인 형가에 빗대어 평을 하고 있다.

4. 결론

『임연당별집』은 산운 이양연 한 사람의 시와 그 시에 대한 네 사람의 총평(總評)과 세평(細評)을 함께 실고 있다. 한 작가의 작품과 시평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보기 드문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임연당별집』에 나오는 제가의 시평(詩評)을 전체 작품평과 개별 작품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 작품평은 크게 5언 절구에 대한 긍정적 평가, 5언 고시(古詩)의 한위 고악부(漢魏古樂府) 유사성, 근체시의 성당풍(盛唐風) 성향, 대단한 정서적 감염력 등을 주로 이야기했다. 형식면에서는 5언 절구와 5언 고시를 높이 평가하였고, 반면 7언 절구와 7언 율시는 아주 낮게 평가하였다. 근체시에 대

한 부정적인 평가는 산운의 선택과 집중을 함께 보여준다. 근체시를 과감히 포기함으로써 새로운 시작(詩作)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내용면에서는 진솔하고 꾸밈없는 정서적 여운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감정의 과잉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되었다.

개별 작품평은 유흥경(柳興慶)이 11則, 이농인(李農人)이 1則, 성재승(成載榮)이 8則, 유희(柳僖)가 9則을 각각 남겼다. 형식적으로는 5언 고시 17편, 5언 절구 7편, 5언 율시 3편, 7언 절구와 7언 율시 그리고 6언시 각 1편씩 언급 되고 있다. 이러한 세평의 결과는 총평과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민요풍 한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은 예상을 벗어난 결과다. 이 시들이 조선풍 한시의 새로운 실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전통 한시의 이완과 붕괴로 볼 수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운 한시에 대한 평들을 종합해 보면, 5언 고시와 악부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평가를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산운시 연구에서 5언 고시와 악부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향후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자료

- 金時習, 『梅月堂集』
李肯翊, 『練藜室記述』
李亮淵, 『山雲集』
_____, 『臨淵堂別集』
鄭元容, 『經山集』
趙 梲, 『白野散集』

■ 저서 및 논문

- 김윤조, 『譯註 過庭錄』, 태학사, 1997, 137~138면.
박동욱, 「山雲 李亮淵의 詩世界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이기백, 『한국사 신론』, 일조각, 1967, 136면.
이용욱, 「山雲 李亮淵의 詩世界」,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_____, 「山雲 李亮淵과 그의 詩世界」, 『한국한문학과 유교문화』, 안동한문학회, 1991.
_____, 「山雲 李亮淵論」, 『조선후기한시작가론2』, 이회문화사, 1998.
전송열, 「山雲 李亮淵 詩 研究」,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최두식, 『韓國詠史文學研究』, 태학사, 1987, 9~18면.

논문 투고일 : 2021.08.31 심사 완료일 : 2021.09.23 게재 확정일 : 2021.09.30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meaning of Sanunsi, which was examined in reviews by 『Im Yeondang Byeoljip』

Pak, Dong-uk

Sanwoon Lee Yang-yeon (1771~1856) is an outstanding poet active in the late Joseon Dynasty. His 『Imyeondang Byeoljip』 was an unknown source. This is because its existence has not been revealed so far. After all, it is integrated behind 『Hangaekgunyeon』. It contains a total of 181 and 207 numbers.

『The Imyeondang Byeoljip』 contains a poem by one Sanwoon Lee Yang-yeon, and four people's general reviews and reviews of the poem. The overall review mainly talked about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five-word mortar, the similarity of Hanwi Goakbu in the five-word poetry, the tendency of the cathedral in Geunchesi, and significant emotional infectivity. The five-word and five-word exams were highly evaluated in terms of form, while the seven-word and seven-word poems were very low. The negative evaluation of myopia shows both the choice and concentration of acid luck. In terms of content, while highly appreciating the sincere and unpretentious emotional afterglow, it was also presented on problems that can cause excessive emotions.

Individual reviews were left by Yoo Heung-kyung, Lee Nong-in, Seong Jae-sung, and Yoo Hee, respectively. Formally, 5 Eon-si, 5 Eon-si, 5 Eon-yul-si, 7 Eon-yul-si, and 6 Eon-si are mentioned. The results of these reviews are almost similar to those of the general reviews. However, there is no mention of the "temporary folk style" is beyond expectations. This is because these poems can be seen as a new realization of Joseon-style Chinese poetry, but they can also be seen as relaxation and collapse of traditional Chinese poetry.

If you put together the reviews of Sanwoon Hanxi, you can get a glimpse of the high interest and evaluation of the 5 Eonsi and Akbushi. Unfortunately, until now, research on Sanun City has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5 Eon-si and Akbushi. Specific research on this part is left

as a future task.

Keywords

Lee Yang-yeon, 『Im Yeondang Byeoljip』, Akbushi, Folk Song Poetry, and Gosi (Old Poetry)